

뒷문방구 아저씨

송마리 (2010년 제6회 5·18문학상 수상작)

"너희들 돌아오지 못해!"

뒤에서 선생님이 소리쳤지만 나는 나뭇잎처럼 팔랑거리며 뛰었어요. 왜냐고요? 뒷문방구 아저씨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소문은 어제저녁부터 삼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경규가 엄마랑 목욕탕에 다녀오는 길이었대요. 경규는 목욕탕 가방을 들고 엄마랑 나란히 걷는 게 창피해서 학교 뒷문 쪽으로 슬쩍 빠졌대요.

평원빌라를 지나면 곧장 산으로 이어지는 길. 그 길을 따라 가다보면 학교 뒷문이 나오고 담장 끝에 뒷문방구가 있어요. 문방구가 언제부터 그곳에 덩그러니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언니, 오빠들에게 물어봐도 전일부터 그곳에 문방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 달라진 거라면 그때는 할머니, 그러니까 뒷문방구 아저씨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항상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들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게 되자 학교에는 이상한 한동안 소문이 돌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안방에 미라로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뒷문방구 아저씨가 매일 밥을 해서 할머니 머리맡에 놓아두는데 아침에 보면 밥이 깨끗이 없어진대요. 우리는 미라가 된 할머니가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어두운 방에서 하얀 밥을 손으로 퍼 먹고 있는 상상을 하다가 무서워 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다 되도록 뒷문방구에 발길을 끊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뒷문파' 였어요.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들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뒷문방구 아저씨를 혼자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아저씨는 우리를 보자 두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했어요. 부쩍 수척해진 얼굴로 왜 그동안 오지 않았냐고 할 때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아저씨 방, 한쪽 벽에 할머니 사진과 젊은 아저씨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었어요. 마치 엄마와 아들 같았는데 젊은 아저씨는 할머니 남편, 그러니까 아저씨 아버지라고 했어요. 늙은 아내와 젊은 남편이라니, 좀 이상했어요.

아저씨는 끓이던 라면에 다시 물을 붓고 라면을 더 넣었어요. 우리는 불어터진 라면과 탱글탱글한 라면발이 섞여있는 냄비에 젓가락질을 했어요. 아저씨는 불어터진 라면가락만 건져 먹었어요. 그리고 배부르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우리도 배부르고 행복하다는 말이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했어요. 겨울방학동안 우리는 학원 끝나면 곧바로 뒷문방구로 달려갔어요.

우리가 문방구 한쪽에 있는 아저씨 방에서 만화책과 게임에 빠져 있으면 아저씨는 슬쩍 토끼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눈이 하얗게 쌓인 앞산에 토끼가 있을 것만 같았어요. 결국 우리는 아저씨를 따라 눈길을 헤치며 앞산을 헤집고 다녔어요. 눈싸움을 하거나 뽕뽕 얼어붙은 개울에서 미끄럼을 타다보면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서 누군가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모두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지난봄부터 뒷문방구 문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마당에 가득 목련꽃만 후두둑 떨어져 있었어요.

새 학년이 된 우리는 바쁘고 어수선해서 뒷문방구를 잘 가지 못했어요. 한솔이와 나는 같은 반이 되었고 경규와 아람이가 한반이 되었어요. 어쩌다 뒷문방구를 가보면 여전히 안은 어두컴컴한 채 문이 닫혀있었어요. 우리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문을 닫고 떠나버린 아저씨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어제 뒷문방구에 불이 켜져 있더라요. 경규가 달려가서 문방구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대요. 문을 두들겨 봐도 아무소리도 없었대요. 집으로 돌아온 경규가 내게 전화를 했어요. 나는 물론 한솔이에게 전화를 했고 한솔이는 아람이에게 전화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뒷문과'였으니까요.

우리는 '뒷문과' 답게 시험점수는 항상 뒤쪽이었어요. 한솔이는 그림을 잘 그렸지만 공부를 못해서 칭찬받지 못했어요. 나와 경규는 달리기를 잘하지만 주목받는 날은 일 년에 두 번 운동회 날 빼고는 없어요. 아람이는 멋부리기 선수인데 선생님은 그 시간에 공부 좀 하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었어요. 하지만 뒷문방구 아저씨는 달랐어요. 한솔이는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고 했고 경규와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육상선수가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말했어요. 정말 체육선생님이, 패션디자이너, 화가가 될 것만 같았거든요.

동네사람들이 세상물정 모르는 얼뜨기라고 수근 거렸지만 우리는 아저씨가 좋았어요. 아저씨가 세상물정을 모를지 몰라도 우리를 알아주었으니까요. 우리는 시험을 망친날도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은 날도, 친구와 다툰 날도 뒷문방구로 갔어요. 아저씨는 우리 얼굴빛만 보고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봤어요.

정말 뒷문방구가 활짝 열려있었어요. 앞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동안 문방구 안에 갇혀있던 짙은 냄새를 날려버렸어요. 노트 겉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하얗게 쌓인 먼지가 아침햇살에 부딪쳐 반짝이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아저씨."

목소리가 어쩐지 조금 떨렸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들어온 문방구는 이상하게 전에 보다 작아 보였어요. 지난 겨우내 아저씨가 만들어주는 라면, 군 밤, 군고구마, 스파게티 등을 먹고 만화책과 게임을 하면서 뒹굴 때는 그 어느 곳보다 넓어보였는데 말이에요. 벽에 걸려있던 늙은 아내와 젊은 남편이 보였어요. 이제보니 젊은 남편은 아저씨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팔꿈치에 부딪쳐 볼펜과 샤프가 우르르 떨어졌어요. 나는 깜짝 놀라 떨어진 것들을 주웠어요. 몸을 굽혀 줍고 있는데 무언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신발위에 앉아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어요.

새끼 고양이였어요. 너무나 작아서 신발에 엉덩이가 빠져있었어요. 아마 아저씨 신발이었을 거예요. 그렇담 아저씨가 돌아온 게 분명한 거예요.

"잘 있어. 이따가 올게."

학교 벨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고양이에게 손을 흔들고 나왔어요.

"뒷문방구 아저씨 만났어?"

쉬는 시간에 아람이와 경규가 우리 반으로 왔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학교 끝나고 뒷문방구 청소하러 가자."

집안의 맏딸답게 한솔이가 말했어요.

"맞아. 문방구에 먼지가 가득 해. 우리가 그 먼지를 다 털어내는 거야."

우리는 빨리 종레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빨리 아저씨가 보고 싶었어요. 새끼 고양이도요.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던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얼굴로 채 번지기 전에 사라졌어요. 아저씨 얼굴에 웃음을 잡아먹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았어요.

"뒷문과 왕자님 공주님 어서 납시오."

아저씨는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신하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뒷문과와 왕자, 공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죠.

"에~헴. 그럼 오늘은 특별히 이 공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청소를 해줄 것이다."

한솔이가 총채를 들고 거드름을 피우듯 말했어요.

"어이쿠, 아니 되웁니다. 먼지가 한 트럭은 되는데요. 귀하신 몸은 쉬시고 못난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십시오."

아저씨가 열린 냉장고로 달려갔지만 이내 뒤 돌아서서 웃고 말았어요. 전에 같았으면 우리에게 바나나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꺼내주었을 텐데 지금 냉장고는 텅 비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먼지를 털기 시작했어요.

*

"아저씨 요즘은 이런 샤프는 안사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재미없다. 요즘은 짱 재미있는 캐릭터 다이어리 많은데. 아저씨는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희왕'은 안 갖다놔요?"

"그건 내 맘이야. 난 너희들이 그런 거 갖고 노는 거 싫단다. 그건 영혼을 파는 짓이야. 싸구려 종이 딱지에 너희들 영혼을 팔래?"

"아~아니요."

경호가 제일 큰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가 없는 동안 '유희왕'인가 하는 것 때문에 엄마 돈을 몰래 훔쳐서 죽지 않을 만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경호는 '내가 미쳤지.' 하며 멍든 종아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보니 아저씨 말이 맞네요. 미친 건 영혼은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 일 테니까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유희왕에 빠져서 여기 오지 않으면 어떡해."

아저씨가 우리가 오지 않을까봐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동안 아저씨는 아이들을 훌쩍 빠지게 하는 놀잇감이나 난폭한 게임기 등은 절대 갖다 놓지 않았거든요. 특히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은 질색을 했어요. 경수가 장난감총을 들고 온 날 아저씨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데 웬 고양이예요."

"내가 돌아와 보니까 문방구 담 밑에 버려져 있잖니. 내가 하루만 늦게 왔어도 아마 죽었을 거야."

고양이는 아저씨 손 위에서 손바닥을 핥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저씨는 어디 갔었어요."

다시 아저씨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저씨의 웃음을 잡아먹는 것이 다시 출동을 했나 봐요.

"우리 왕자님 공주님들이 이렇게 귀하신 몸으로 청소를 해 주었으니 소인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요?"

"라~아~면이요."

우리는 망설임 없이 동시에 외쳤어요. 왜 아저씨가 끓여주는 라면은 특별히 맛있을까요. 사실 집에서도 라면을 먹을 때가 많은데요. 장사를 하는 한솔이와 경규 엄마 아빠는 늘 바빴고 아람이와 우리 엄마도 직장에 다니느라 저녁때나 보게 되요. 그래서 학원 갔다 오거나 가기 전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있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그래서 뒷문방구가 문을 닫는 동안 아저씨가 끓여주던 라면 맛이 그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만. 자, 귀 기울여 봐."

우리는 아저씨를 따라 양손을 올려 귀에 붙이고 나팔처럼 모았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 건너편에 개울물소리가 들렸어요. 살구꽃이 떨어지고 파란 살구가 달린 살구나무가 보였어요.

"이 소리가 듣고 싶었어. 우리 라면 먹고 떡 감으러 가자."

"야~아~옹."

새끼 고양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아저씨의 윗도리가 물에 젖자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어요.

그동안 아저씨는 어디 갔다가온 걸까요. 웃음을 잡아먹는 곳. 갈비뼈의 살을 야금야금 뜯어먹는 곳에 갔다 온 걸까요.

뒷문방구가 문을 닫고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녔어요. 드디어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고 떠났다고 하기도 하고 할머니 산소 옆으로 이사를 갔다고도 하고 그 산소를 몰래 파서 밤마다 몰래 망월동 젊은 남편 옆으로 옮기고 있을 거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뒷문파'는 아저씨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아저씨는 앞에 산이 보이고 개울물소리가 들리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뒷문방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평화롭다고 했거든요.

아저씨는 바쁜 엄마 아빠 대신 우리와 여름만 되면 이곳으로 놀러왔어요. 물론 엄마 아빠는 우리끼리 놀다 온줄 알았죠. 아무도 '뒷문파'를 몰라야 했어요. 뒷문방구는 우리의 비밀장소여야 했으니까요.

경규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을 끼얹는 바람에 모두 물속으로 달려 들어가 등을 돌리고 물을 마구 끼얹었어요. 까르륵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개울물을 타고 흘러갔어요. 한바탕 물싸움을 나서 널따란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햇볕에 데워진 하얀 바위 위에 물에 젖은 우리 몸이 고스란히 찍혔어요. 등이 따듯해져 왔어요.

"나 학원가기 싫어."

아람이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나두. 오늘은 수학학원에서 도형문제 풀어야 한단 말이야. 만날 봐도 모르겠어."

"경규야, 그럼 저 네모구름을 봐. 저어기. 보이지?"

아저씨가 가리킨 하늘에 정말 네모모양의 구름이 등실 떠 있었어요.

"저 구름의 세로를 5센티라고 하자. 그리고 가로로 7센티. 그럼 넓이의 이분의 일은 얼마쯤일까?"

우리는 파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어요. 좁은 칠판에 그려진 도형과 숫자를 볼 때와는 달랐어요. 넓고 파란 하늘 때문이었을까요. 답답했던 마음이 뽕 뚫린 것처럼 시원해서 머릿속 숫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17.333.... 그런데 소수자리가 너무 길다."

"괜찮아. 싹둑 잘라도 돼. 벌써 구름 한 귀퉁이가 사라졌거든. 하하하."

아저씨가 크게 웃었어요. 어느새 구름 한쪽 귀퉁이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구름이 자꾸 찌그러지더니 마침내, 세모, 동그라미가 되었어요.

아저씨는 옛날의 그 뒷문방구 아저씨로 돌아왔어요.

뒷문방구를 나오는 여자 아이들은 열 손가락을 부채처럼 펼치고 치켜들었어요. 자기 손톱이 더 예쁘다며 티격태격 하기도 했어요. 아저씨가 다시 손톱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었던 거예요.

아저씨가 손톱에 그림을 그려주게 된 것은 1학년 여자 아이 때문이었대요. 입학한지 얼마 안 되서 선생님께 혼나는 반 아이를 보고 그 아이는 무서웠나 봐요. 무작정 학교를 나와 울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대요. 아무도 아이가 수업시간에 학교를 나왔는지 몰라대요. 아저씨가 그 아이의 손톱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자 '뚝' 울음을 그치고 자랑하러 학교로 돌아갔대요. 그때부터 다른 아이들도 아저씨에게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난, 별과 구름"

"난, 꽃과 나비"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코를 손톱에 박은 채 그 위에 작은 꽃과 나비를 그리는 아저씨를 보면 정말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 같기는 해요.

아저씨가 잔뜩 꽃과 나비 그리기에 몰두해 있을 때 까마귀 같은 승효가 샤프를 슬쩍 주머니에 넣는 걸 본 적도 있고 어떤 아이는 다이어리를 두 개 가방에 넣고 한 개 값만 내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내가 일러바치면 아저씨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세상에는 총과 칼을 들고 모든 것을 앗아간 무시무시한 도둑도 있다면서요.

아저씨는 내 손톱에 아주 작은 새 한 마리를 그려주었어요. 진짜 새가 내 손톱위에 날아와 앉은 것 같았어요. 땀이 아저씨의 얼굴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어요. 나는 조금 미안해졌어요. 아저씨는 한솔이의 손톱에도 예쁜 꽃을 그려주려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구경만 하던 한솔이가 아저씨의 손에서 슬며시 자신의 손을 잡아 뺏어요.

"너 왜 손톱에 그림 안 그렸어?"

집으로 오는 길에 내가 묻자 한솔이가 머뭇거렸어요.

"나, 이제 뒷문방구에 못 갈 것 같아. 엄마가 거기 가지 마래."

"왜?"

한솔이는 휘둥그레진 내 눈을 피해 땅을 발로 찼어요.

"너, 모르는구나. 아저씨가 오월이 되면 밤마다 늑대가 되어서 울부짖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된대. 아참, 나 학원 늦겠다. 잘 가."

장난감 총과 칼만 봐도 얼굴이 하얘지는 아저씨가 늑대가 돼서 울부짖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두커니 서서 뛰어가는 한솔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보니 경규나 아람이도 요즘 뒷문방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녁 밥상머리에서 엄마도 똑 같은 말을 했어요.

"수라네 학교에 뒷문방구도 있었어?"

아빠가 물었어요. 내가 몇 반인지도 모르는 아빠가 뒷문방구에 대해서 알 리가 없겠죠.

"그 왜, 학교 뒷담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에서 학교 담장 쪽으로 있어요. 할머니랑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 동안 어디서 뒹췄는지 떠도는 이야기가 많아요."

엄마는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듯 침을 꿀꺽 삼킨 다음 목소리를 낮쳤어요.

"오월 그날, 할머니 남편이 총에 맞아 쓰러졌대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멍하니 있던 아이 생각나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일지도 모른대요."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아. 벌써 삼십년 전 이야기군."

아빠의 목소리도 낮아졌어요. 어른들은 왜 그날 이야기만 나오면 방안에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진 곳에서 장사가 되나?"

"그러니까 더 이상 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아이들의 손톱에 레일아트를 해주질 않나 여름이면 아이들과 물장구치며 놀기도 한 대요. 가을이면 산으로 도토리나 밤을 주우러 다니기도 하구요.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대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손톱을 오므렸어요.

"그래야지.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아이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야? 수라야 절대로 뒷문방구가 뭔가 하는 그곳에 가지 마라."

아빠는 갑자기 내가 너무 걱정이 되나 봐요. 휴일에 툭하며 피곤하다며 낮잠을 자다가 약속 있다고 나가버리는 아빠가요. 나는 그런 아빠보다 뒷문방구 아저씨와 산에 가거나 물장구치며 놀던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앞산에 생강나무나 버즘나무, 꽃병나무 등이 있다는 것도 아저씨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학원을 하나 더 다니게 해야겠어요. 내가 퇴근할 때까지 수라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엄마는 학교 끝나고 남은 시간을 학원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난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뒷문방구 아저씨가 있다고. 하지만 목이 매여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대답이 없어? 다 아빠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야."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렸어요. 정말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뒷문방구 아저씨가요.

"야옹."

고양이가 나를 보고 달려왔어요. 발밑에 노란 은행잎이 날려 고양이 등에 붙었어요.

나는 고양이 등에 붙은 은행잎을 털어주었어요. 살이 통통 오른 고양이는 부쩍 커보였어요. 이젠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획 돌아서더니 학교 뒷담 쪽으로 걸어갔어요. 몇 걸음 건다가 뒤를 돌아보고 다시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왜 따라오지 않느냐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새로 다니라고 한 영어학원은 엄마 퇴근시간에 맞춰서 끝났어요. 학원차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은 학원차를 타지 않고 뒷문방구로 갔다가 엄마에게 엄청 야단맞은 적이 있었어요. 한솔이와 아람이도 학원 다니느라 바빴는지 학교 끝나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은 아저씨와 앞산으로 도토리야 밤을 주우러 가지 못했어요. 나는 학원 차와 고양이를 번갈아 봤어요. 하지만 어느새 내 발길은 고양이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밤송이를 까고 있었어요. 나는 오랜만에 보는 아저씨에게 선 듯 다가가지 못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수라공주님. 곧 군밤을 대령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본 것처럼 나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오랜만에 본 문방구 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새로운 물건도 팔려나간 물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가 난로위에 밤을 올려놓았어요.

타, 타, 탁.

밤 껍데기가 벌어지면서 소리를 냈어요.

"조심하세요. 공주님. 밤이 너무 뜨거워 화가 나면 터진답니다. 잘못 눈에라도 맞으면 눈이 밤탱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아저씨는 뜨거운 밤 껍데기를 호호 불어가며 까서 내게 주었어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밤은 달콤하고 구수했어요. 나와 아저씨와 고양이는 맛있게 밤을 먹었어요. 아저씨의 입가에도 고양이의 입가에도 숯검정이 묻었어요. 진열대 위에 있는 작은 거울을 보였어요. 내 입가에 숯검정이 묻어있었어요. 거울 속에 아저씨모습이 비쳤어요. 거울 속 아저씨는 이상하게 더 마르고 작아 보였어요. 아저씨의 웃음을 잡아먹는 것이 또 출동을 했는지 아저씨 얼굴이 슬퍼보였어요. 우리 앞에서는 항상 웃는 아저씨인데 어디에 저런 슬픈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거 경규랑 한솔이랑 아람이 가져다줄래?"

아저씨가 쭉스럽다는 듯 웃으며 깡 군밤을 담은 봉지를 내게 주었어요. 아저씨는 끝까지 왜 아이들이 오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나도 아저씨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다음날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아이들에게 군밤을 주었어요. 한솔이가 식은 군밤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먹보 경규도 선 듯 깨물어 먹지 못했어요.

"나도 그동안 서 너 번 잤었어. 그런데 아저씨를 만나지는 못했어. 웬지 모르겠어. 그냥 아저씨에게 미안해서……."

모두 그랬나 봐요. 엄마 아빠의 말이나 떠도는 말을 모두 믿은 건 아니지만 어느새 우리도 뒷문방구에 가는 발걸음을 끊었으니까요.

"야, 우리 이번 시험 끝나면 같이 가보자. 아저씨가 보고 싶어."

"그래, 우린 뒷문파잖아."

수업종이 울리고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바보였어요. 아저씨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엄마나 아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떠도는 말을 믿다니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저씨와 함께 보냈으면서 말이예요.

그런데 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꼭 시험 끝나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시험은 한 달 후에도 다시 보고 또 보는데 아저씨는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얘들아, 뒷문방구 아저씨가 사라졌대."

우리 반 측새 희만이가 교실로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한솔이와 나는 교실을 달려 나왔어요. 옆 반에서 경규와 아람이도 달려 나왔어요. 우리는 학교 뒷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너희들 빨리 교실로 들어가지 못해!"

교장선생님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야~아~웅"

뒷문방구 앞에서 고양이가 우리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고양이를 보자 우리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아저씨가

고양이를 두고 떠났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방구 유리창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알았어요. 아저씨는 손톱에 그림을 그리던 노란 매니큐어로 편지를 써 놓았어요.

또, 인사를 못하고 가게 되었네.

안녕, 친구들.

항상 문방구 문은 살짝 열어 놓아 줄래?

이제 고양이는 다 커서 혼자 살아야 한단다.

폭력이 없는 곳, 평화로운 곳을 찾아가 볼 거야.

물론 너희들과 함께한 이곳도 평화로웠단다.

내년에 앞산 개울가에 살구꽃피면 만나자.

아저씨는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곳을 찾았을까요?

아저씨가 처음으로 우리를 친구라고 했어요. 만날 공주님,王子님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살구꽃 피면 정말 아저씨가 올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게 진짜 친구니까요.